

# 사설

## 부끄러운 정재형령

13일 조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주지 현근스님을 비롯 15명이 거역의 사찰공공을 횡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공공횡령 등의 혐의로 이들을 서울 지검에 고소하였다고 하니 정확한 내막은 검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증발된 액수가 무려 2백억원 이상이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 들어 종단 내에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엔 불교사가 경주 시내에 불교회관을 지을 돈 13억원을 전 재물이 가지고 잠적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구지방의 모 본사에서 맛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의 불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하고 걱정스럽다.

종단내의 공공횡령사건은 비리에 관련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 전체의 손실이고 불교계 전체의 사회적 위상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단순한 비리사건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미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스님들 개개인이 초심으로 돌아가 출가 본연의 뜻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종단적 차원에서 사찰운영방식에 이체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동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신도들의 보시는 공공이요 교단에 속한 공공 재산이므로 사찰운영도 더이상 주지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의 독단이나 전횡에 맡기지 말고 공개적인 운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자양복지관 관장과 부산의 공창복지관 재무담당스님도 공공횡령과 관련하여 해임 당한 일이 있었다고 들린다.

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종단 내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교방송국 공공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님들을 바라보는 세인들의 눈총이 전에 없이 따가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금전과 관계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사찰운영의 공개를 놓고 공청회를 열기도 하였지만 더이상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의 사찰에서는 이미 사찰운영을 신도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스님들은 본연의 임무인 수행과 교화사업에만 힘쓰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며, 모 종단에서는 출가자들이 금전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스님들이 사찰운영에 직접 매달리고 있는 곳보다 사찰운영에 신도들을 참여시키고 재정을 공개하는 곳이 더 효과적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도들의 참여는 미래지향적이고 반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찰운영을 전적으로 신도들에게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지만 도입해 보지도 않고 사고를 미리 걱정한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한다.

# 백양사 납골당 건립

교구본사 최초 영각당 9월10일 개원  
2천여기 수용...“장묘문화 대중화 기대”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교구본사에 최초로 한국형 납골당이 세워져 불교장묘문화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 백양사(주지 대정)는 대웅전 맞은편에 1층 명부전과 지하 1층 50평에 납골묘 2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영각당을 건립하여, 9월 10일 문을 연다.

이로서 국립공원내 교구본사로는 최초로 경내에 설치된 백양사 한국형 납골당은 전통장례문화와 불교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장례문화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지원으로 6억여원을 들여 97년 11월부터 조성하고 있는 납골당은 이미 1층 명부전이 완공되었고 지하 1층 영각당 내부 공사도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영각당은 개인단과 부부단, 가족단 3가지 형태의 납골묘를 설치하고 자동항온 항습장치, 탈취 및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자동방화 방재시스템등의 첨단 시설을 갖춰 영혼들이 편히 쉬 수 있도록 염수하고 아늑하게 꾸미게 된다.

또 고인의 생전비디오와 사진, 기록물을 담은 CD를 제작하여 타임캡슐 형태로 영구히 보관하여 가족과 후손이 찾아올 때마다 열람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백양사 영각당은 명부전 지하에 자리잡아 매일 은은한 독경소리와 종소리가 어우러져 편안한 안식처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특히 영각당은 납골묘의 설치뿐 아니라 장례준비 및 전문직인 파견, 봉안 사후인사까지 담당하는 장례종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장례비용을 대폭 낮추는 방침이다. 개인단 납골묘는 1기당 3백50만원으로 영구 보존할 수 있다. (0685)392-7502

김원우 기자  
(wkim@buddhania.com)



◇납골묘를 안치할 백양사 영각당 위에 들어선 명부전.

## “원로의원 직접 선출하자”

조계종 원로회의 논의...사무처장에 원타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15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원로의원의 자격 가운데 연령제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상향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원로의원 선출방법은 현행 중앙총회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원로회의에서 직접 선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로회의는 또 분기마다 회의를 열기로



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사무처장에 원타스님(해인사 총무·사진)을 임명했다. 원타스님은 성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74년 사미계, 75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정성운 기자

## “김포학사 공사비마련 토지매각”

조계종 총회 중앙승가대특위, 본회의에 건의키로

조계종 중앙총회 중앙승가대 학 김포학사 특위(위원장 종하)는 22일 총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열고 김포학사 공사비 마련을 목적으로 조계사, 개운사, 흥천사 소유의 지방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본회의에 동의 요청을 하기로 결의했다. 특위는 또 종단 소유의 유후토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 매각하는 방안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위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법 인사부처와 김포학사 건립현황(계약이행 여부 및 설계·감리

문제 등)에 대해 실사키로 결정했으며 김포학사 공사대금과 관련 학교법인 승가학원과 (주)종림산업에 당초 계약서대로 성실히 이행토록 촉구하기로 하고, 김포학사 이전에 따른 전반적인 ‘중앙승가대 운영 계획’을 승가학원으로부터 보고받을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고산스님은 조계공사 이석복감사로부터 고승기념메달을 기증받았다.

## 고승메달 1세트 고산스님 기증받아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4일 한국조계공사 이석복 감사로부터 “근세 100년 고승기념메달” 1세트를 기증받고 환담했다. 고산스님은 “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좋은 불사”라

며 많은 불자들이 소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조계공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제작한 고승기념메달 1차분 세트는 용성 청담 만공 고암 만해 경봉 한암 성철스님 등 여덟분으로 구성, 5백세트 한정으로 보급되고 있다. (구입문의 02-737-8881, 722-4162)

정성운 기자

## 동국학원 이사 후보 녹원스님등 12명 선정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오현)는 12일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상실된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8명에 대한 이사회 12명을 선정했다.

12명은 현 이사장 녹원스님을 비롯 보광(해인사·주지) 현해(월정사·주지) 백파(현 이사) 영배(종회사무처장) 장운(전등사·주지) 현각(동국대 불교대학장) 성관(수원포교당·주지) 정후(종회 종합종법특위 위원장) 원서(재신호계원장) 범종(전 해종특위 위원장)스님 등이다.

관리위원회는 또 중앙승가학원 이사후보로 일면(교육원장) 정연(포교원장) 도후(신흥사·주지)스님등 14명을 선정했다.

정성운 기자

## 종교청년 평화캠프

종교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제2회 ‘종교청년 평화캠프’가 8월 17일부터 서울 동안 의정부 다락원 캠프장에서 열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의 대학생과 청소년 교육기관 단체장 및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 고산스님 “중신회선거 철저 중립”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오는 8월23일 열리는 중앙신도회 회장 선거와 관련 “중신회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여법하게 선거가 치뤄져야 하며, 총무원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원이나 간섭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산스님은 14일 최근 전국불교인연합회 총회에서 중신회 회장후보로 추대된 면담수 대협그룹 회장장 및 임원 등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라면서 “누구든지 불교에 대한 신심과 원력을 가진 분이면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면담수 회장은 “신심과 지도력, 재정능력 등을 겸비한 사임없는 신도가 중신회 회장이 되어야 한다”며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총무원과의 협조관계 속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현대만평

바구원

변화가 될라

737-8881

현대만평 구독신청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 대원불교대학

동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등문 졸업·40기생 모집중>

-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 교육과목** 20개 과목의 법패의식(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물리때 법패의식 교육)
- 교수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중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 초빙강사** 율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1 학년

1 학기 (16주)	◇ 불교경전의 이해 ◇ 초기불교의 이해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불교상용 의식	◇ 유식사상
2 학기 (12주)	◇ 화엄사상 ◇ 구사론(아비달마)	◇ 중국불교의 이해 ◇ 불교상용의식 실습	◇ 비교종교

2 학년

1 학기 (18주)	◇ 부파불교의 이해 ◇ 대승기신론	◇ 밀교학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 반야사상
2 학기 (12주)	◇ 한국불교의 이해 ◇ 선사상	◇ 대승불교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 전태사상

- 모집과목 및 인원**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 불교학 동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 가능
-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제천 묘정암 (0443)653-3249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원주 범용사 (0371)742-2701
  - 진해 삼림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암 (0595)882-4585
- 특전사항**
  -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 포교실습 지방자치법체 제공
  -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